

## 표준화의 과거실적과 장래에의 도전

이 글은 CCITT(국제전신전화자문위원회) 의장인 Dr. Theodor Irmer가 일본 우정성 초청으로 지난해 11월 4일에 특별 강연을 했던 내용으로써 TTC Report에 실린 글을 번역 소개하는 것입니다.

〈편집자주〉



Dr. Theodor Irmer  
CCITT 위원장(현 ITU 표준화부문 국장)

### 서 문

2년전 본인은 이 곳 일본에서 전기통신 표준에 관한 Symposium(STS '90)에서 이와 같은 강연을 가진 바 있습니다. 2년전 강연때 88년에 개최된 CCITT 총회의 결과와 그 후 89년에 실시한 여러 시책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총회에서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어떠한 것을 달성할 수 있었는가를 이야기 드린 것입니다. 그로부터 꼭 2년이 지난 오늘 다시금 일본에 오게 되어 실제로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과거 2년간을 되돌아 보고자 합니다.

2년동안 우리들은 CCITT에서 아주 많은

변혁을 이룩해 왔습니다. 89년의 전권위원회 의에서 고위위원회(High Level Committee)가 설치되어서 이 곳에서 ITU의 조직과 작업방법에 대해서 여러각도로 검토가 이루어져 결과적으로 96개의 권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ITU의 관리이사회에서 승인되어 새로운 전기통신조약, 헌장의 조항으로 성립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수 주 후에 제네바에서 대규모의 회의가 열리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째가 1992년 12월에 개최되는 추가전권위원회의(APP)로서 여기서 고위위원회(H.L.C)에서 제안된 수정안을 검토하고 승인되도록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1993년 3월에 개최되는 CCITT 총회입니다.

변혁이라는 것은 결코 정지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CCITT 또한 가만히 서있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변화라는 것도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이는 긍정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싶지만 꼭 그런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범세계적인 전기통신의 표준화는 확실히 과거에는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Telex는 세계 어느 곳이나 보낼 수가 있고 세계 어느 조그만 마을에도 전화통화를 할

수 있고 FAX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세계적인 표준화가 CCITT의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확립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기통신 분야에 있어서 기술뿐만이 아니라 전기통신에 관련된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유화, 규제완화, 민영화, 경쟁, 국제화(Globalization), 지역화 등등 이 모든 상황이 계속 움직이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화라는 것은 이러한 주위의 모든 일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장래에 있어서 표준화가 과거와 같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인지, 지금 제네바에서는 매일 장래에 성공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 기술혁신과 표준화

디지털 혁명이라고 불리는 것에 의해서 우리들의 Net-work 서비스는 과거 20년 동안에 완전히 변화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2000년대를 지나서도 아날로그(Analog) 기술이 계속 사용될 것이라는 견해들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전혀 틀린 견해라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이 디지털 혁명은 오늘날 새로운 기술의 기회, 새로운 해결, 새로운 제품을 낳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기술에 의해서 산출되는 새로운 산물의 결과로 새로운 표준이 자꾸자꾸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디지털 기술에 있어서의 표준은 점차 복잡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작성하고 있는 표준의 양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은 근대적인 표준이 점점 복잡해지고 표준을 작성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점점 더 필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다 많은 새로운 표준을 또한 아주 복잡하고 양적으로도 많은 것들을 단기간내에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표준화기관들이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것에 대처하는 방법, 좀 더 원활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

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준의 양의 증가추세를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직선적인 증가형태를 나타내는데 이와 같은 표준을 실제로 써서 지면에 싣는데 필요한 페이지의 수는 직선의 형태가 아니고 기하급수 즉 지수함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즉, 표준의 수 자체의 증가라는 것이 그렇게 크지 않다 하더라도 각각의 표준에 필요한 수의 증가는 대단히 큰 것입니다. 68년에서 88년까지의 표준문서의 페이지수는 약 18,000에서 19,000페이지 정도입니다. 그러나 요새 4년간에는 표준의 수 자체는 100정도가 늘었는데 페이지수로는 68년에서 88년까지의 20년간 만든 것과 거의 같은 정도의 양이 필요하였습니다. 즉 요근래 4년 동안에 19,000페이지의 새로운 표준이 만들어 진 것입니다.

이것으로서도 표준의 복잡성이 어떻게 증대하고 있는 것인지를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을 어떠한 형태로든 관리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 표준화에 있어서의 환경의 변화

기술만이 이러한 표준화의 절차를 전진시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외에 전기통신이 실제 행해지고 있는 환경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 환경의 변화라는 것은 상당히 많으며 이것이 표준화에 대하여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규제완화, 자유화, 민영화입니다. 이것 역시 표준화의 절차에 대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유화에 따라서 Network의 제공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의 수가 증가됩니다. 또 메이커의 수도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참여자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장에 가지고 들어올지도 모르며 표준화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것의 아주 뚜렷한 징조로서 Study Group(SG)에는 새로운 참가자들이 나오고 있고 이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68년에 CCITT를 시작하였을 때는 가장 큰 SG가 50명 정도밖에는 참가자가 없었지만 지금은 500명, 600명으로 구성되는 SG, 때로는 800명의 대표가 참가하는 SG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과거와 같이 자국시장은 더이상 보호되어 있지 않고 즉 정부는 국영의 전기통신이 외부로부터의 경쟁에 노출되는 것으로부터 보호받던 시대는 지나가고 지금은 범세계적인 경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업체는 유럽에, 유럽은 미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일본에서도 일본이 유럽에 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의 경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표준화라는 것이 아주 어려운 문제로 되었습니다. 표준화에 있어서 무엇인가 잘못된 일이 일어나면 이 부정적인 결과는 국내시장에서 악영향을 미칠 뿐만아니라 세계시장에서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또는 User(사용자)중에서도 표준화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표준화 프로세스 자체에 이와같은 사용자 조직을 참가시킨다든가 또는 사용자의 요구를 표준화활동 안에 반영시킨다든가 하는 것을 생각해 나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10년, 15년 전에는 그와 같은 것을 그리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또한 변하고 있는 환경의 하나로서 보다 많은 조직들이 표준화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CCITT는 이 분야의 표준화에 관해서는 10년전까지는 독점적이었지만 이러한 독점상태는 거의 사라지고 더욱 자유화된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들만이 이 분야의 표준화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세계각지에 여러가지의 표준화 조직이 있어 국제적인 것, 지역적인 것들로 나뉘지며 예로 유럽, 일본, 미국에 지역 표준화 조직이 있습니다.

이들 각 지역의 조직이 각각 따로따로의 표준을 만들어 낸다면 그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CCITT와 지역조직간에 아주 양호한 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11월5일, 6일에 TTC의 초대를 받아 "도-쿄"에서 CCITT와 지역조직 또는 그 외의 몇개의 표준화조직간에 제3회 지역간 표준화회의(ITSC3)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여기서의 목적은 이러한 협력을 더욱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ETSI, T1, TTC와 같은 주요 표준화 조직이 B-ISDN, IN, TMN, UPT등 주요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표준화조직이 밀접하게 협력하고 표준화 안을 CCITT에 제출하기 전에 의견 조정을 하거나 이견이 있을 때 CCITT에 상정하기 전 단계에서 조정하는 등의 협조관계가 진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조기구는 다른 표준화기관에 대해서 개방되어 있어 캐나다, 호주, 한국 등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 표준화에 요구되는 상호접속성

기술의 혁신, 환경의 변화, 자유화, 경쟁, Global(범세계)화, 지역화 이러한 전개로부터 전기통신의 표준화라는 것은 현재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으나 여기서 자문하는 것은 「전기통신 시장이 자유화 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Global한 표준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이다. 또한 「그런 것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시장에 그것을 맡기면 되는 것이며, 필요가 있으면 결국 사람들이 길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표준화는 필요없다.」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실의 한 면만 본 것일 뿐이고 시장에 나가지 않고 Market가 모든 것을 결정지워 줄 거라는 모델이 좋다고 한다면 세계적인 상호접속성, 상호운용성은 불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적어도 그 가능성은 그리 확실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세계 각지와 상호 접속되는 Network가 있는 것으로 그러한 시장이 표준화의 큰 실적으로서 전기통신 기술자로서 우리들은 전세계적인 상호접속성, 상호운용성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하겠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표준이 있어서

가능하게 된 것이며, 만약에 시장 기능에 맡긴다는 자세로 해왔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전세계적인 메시지의 교환수단이라는 것이 실현되지는 못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장래에도 그 성공을 보증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기술 그리고 표준화를 둘러싸는 환경 모두가 급속하게 변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인 상호접속성, 세계적인 상호운용성이 금후에도 영속되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살아남기 위한 것이라면 세계적인 상호접속성, 상호운용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이 두대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는 지금과는 아주 완전히 다른 것이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술과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잘 기능되어 온 원칙을 장래에 있어서도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세계표준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단 그 표준화의 책정방법은 과거와는 상당히 다른 것이 될 것입니다.

### 표준작성의 스피드업

다른 것이라는 것은 표준의 양이 늘어나고 복잡성이 더 커졌다는 것으로부터 우선 표준의 책정을 가속화 시키지 않으면 안됩니다. 옛날의 순서로 하면 예컨대 최고 4년 정도가 걸려서 전체회의에서 표준이 승인되었는데 이제 4년이란 기간은 너무나 길다.

이를 위해서는 작업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네바에서의 작업환경은 벌써 10년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것들이 많아서 이제는 효율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환경, 예를 들어 연구소나 사무실에서의 환경을 생각해 볼때 20년전의 기재를 지금도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워드프로세서, 컴퓨터 같은 새로운 기재가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CCITT에서는 지금까지도 옛날의 구두를 그대로 신은 채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안됩니다.

또한 표준화를 책정하는 절차도 더욱 유연

한 절차로 고치지 않으면 안됩니다. 아직도 관료주의적인 데가 있습니다. 또한 시장지향적인 표준이 필요합니다. 기술에 의해서 움직여 가는 표준 뿐만이 아니고, 표준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산물로서 그 산물이 시장에 나올때에는 시장이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것이 늦어지면 다 잊혀집니다. 말하자면 표준만들기라는 것은 하나의 상업적인 생산의 "프로세스"다 하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장의 생산에 있어서 기업의 생산활동에 사용되고 있는 규칙과 같은 원칙을 우리들도 표준작성에 적용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100%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몇년이건 조사연구를 계속해서 결국에 결론이 난 시기에는 벌써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어서 표준의 필요성이 없어졌다 한다면 아무데에도 쓸모가 없어집니다.

오늘날의 표준은 기한(期限)이라든가 그러한 확실한 기일을 설정해서 책정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예컨대 2년 전에 B-ISDN의 표준을 작성해서 그것을 보충시키는데 2년이 걸렸다면 4년이 지나가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이미 그 표준은 낡은 것이 되고 맙니다. 표준의 개발을 협력적인 활동으로 진행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되며 세계적인 표준단체와 지역 표준단체들 간의 협력관계를 더욱 확대해 나갔으면 합니다.

이러한 개혁은 벌써 착수되고 있습니다. 88년의 총회에서 1년 지난 시기에 이러한 새로운 수단을 시작하였으며 그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와 같은 새로운 절차에 따라 종전의 관료주의적인 일들이 배제되어 가고 있으며, 이것에 용기를 얻은 우리들은 1993년 3월의 총회에서 더욱 강력히 추진해 나가려 생각하고 있습니다.

CCITT에서는 표준화 작성을 가속화 시켜왔으며 또한 표준의 배포에 대해서도 상당한 개선을 실현해 오고 있습니다. 당초 표준 또는 권고를 종합하는 데 평균 4년이 걸렸지만

이제는 18개월로 단축되고 있으며 앞의 방법으로 정리·통합을 진척시켜 이것을 더욱 단축시키는 것도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Study Group도 재편성하고 있어 지금은 기능별 Group으로 되었습니다. 회사로 말하자면 제품별 사업부가 되었고 작업의 중복이 없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래포터그룹이라든가 Small Group의 작업이라든가 효율이 높은 레벨의 작업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ISO와 중복되는 분야에서는 ISO가 표준을 작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리들은 그것을 받아들여 CCITT가 자체적으로 표준 작성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들이 먼저 표준화를 할 경우에는 ISO는 이것을 받아들여 ISO 표준으로 인정하고 공표한다든가 이런 결과로서 작업이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ISO와 CCITT가 서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의 Text를 빌려서 같은 방향으로 병행하여 협력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 표준화 기관과의 협력도 진전되고 있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 권고의 출판과 데이터베이스화

1993년 3월의 총회에서는 더욱 변경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한가지를 예로 들어 이번 총회에 제안하고자 하는 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현재 권고의 책의 형태가 Blue Book, Red Book과 같은 형태로 발표해 왔지만 그 양이 많이 늘어나서 책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기간이 걸리고 또한 그 비용도 높아 집니다. 그래서 각 표준이 승인되면 곧 이것을 인쇄해서 그 자체에 커버를 씌워 하나의 책자(brochure)로서 발표합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와 같은 Blue, Green, Red book과 같은 것은 없어지고, 개별적인 권고가 배포되고 이것을 종합해서 사용토록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측에서도 표준화에 참가하고 싶거나 권고의 최신 상황을 알고 싶다면 때

그것에 시간이 걸린다면 겨우 발주한 권고를 입수했을 때는 벌써 시기가 늦었다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권고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는 것을 시작했으며 현재 진행중이고 회원국 조직에 대해서는 무료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Access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993년 부터는 ISDN의 권고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전자적으로 Access할 수 있게 되며 이 때 Access Fee를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개개의 Access 때마다 받는 것이 아니고 연간 일괄해서 받도록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비용도 저렴해 지고 정보도 짧은 시간내에 입수된다는 이점이 있어 CCITT로서는 이것을 적극 연구해 갈 문제입니다.

### ITU의 조직 개혁

개혁에 관한 몇가지의 문제는 CCITT의 권한을 넘는 분야가 있습니다. 즉 같은 개혁이라도 ITU조약의 수정을 요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표준화 개선의 긴급한 문제는 ITU의 조직과 기능을 재검토해야 할 부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추가전권위원회의(APP 1992. 12. 개최)에서 ITU의 헌장·조약을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술의 혁신, 환경의 변화가 급하기 때문에 94년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것으로 임시 추가전권위원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것입니다.

개정의 원안은 고위위원회(H.L.C)에서 검토한 것으로 ITU전체를 어떻게 개혁하느냐 하는 것으로 2개의 관련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CCITT의 내부적 개혁인데 이것은 88년의 "멜버른"총회 때부터 시작하여 현재도 속행되고 있습니다. 둘째는 ITU 레벨의 개혁, 재편입니다. CCITT는 어디까지나 ITU의 일부일 뿐이며 이 두가지 중요한 사항에 의해서 우리들의 효율이 높아지고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ITU의 조직으로서는 IFRB, CCIR, CCITT, BDT와 사무총국이 있으며 고위위

원회의 제안으로 장래 표준화에 관해서는 표준화만을 전문으로 하는 섹터(Sector)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현재 CCITT의 표준화와 또한 CCIR의 무선관련 표준화 두 갈래가 있으나 이것을 단일화해야 한다는 것이 고위위원회의 제안입니다. 지금까지는 무선과 유선으로 분리되어 표준화가 실시되었지만 통합되면 연락업무라든가 서류의 중복같은 문제는 없어지게 됩니다.

APP가 이것을 승인하게 되면 CCIR, CCITT의 양쪽으로부터 새로운 표준화 섹터에 업무를 이관하게 되는데 이에 상당한 시간이 요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루아침에 표준화 섹터로 이관되는 것이 아니고 CCIR에 관한 Network관련의 표준화가 우선 이관되고 나서 표준화 동향에 착수해서 여러가지 분야가 속속 이관될 것입니다. 이 절차가 완료된 단계에서는 모든 표준화에 관련된 문제가 한 부문에서 취급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CCIR은 표준화 이외에 무선관련의 규제적 역할이 있으며 여러가지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은 표준화 섹터에 이관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IFRB와 합하게 됩니다. IFRB는 현재 상설기관이지만 이것을 연2회의 임시 위원회로 하고 신 IFRB와 CCIR이 융합해서 무선통신섹터로 변신해 간다는 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이관할 것인지 현재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APP가 이 새로운 ITU의 조직을 승인하게 되면 표준화 섹터, 무선통신섹터, 개발국이 세계의 섹터가 생겨서 주요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표준화의 단일화가 1993년 3월의 총회로 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 자문단(Advisory Group)

여기 아주 중요한 요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범세계적인 표준은 장차 만들어 갈 것이지만 이것은 행정기관이나 주관청이 아닌 실제의 Network Provider가 되고 주관청은

규제담당국에 불과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관청이 보편적인 조직이었으며 Network와 서비스의 제공자이기도 하고 요금책정도 하기도 하고 규제당국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유화의 결과로서 상황은 바뀌어 많은 나라들에서 그 규제당국과 운용자가 분리되고 있습니다. 규제당국은 주관청이 되고 말하자면 게임의 규칙을 설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것을 운용해 나가는 것은 주관청이 아닌 다른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현재로서 주관청은 적극적인 표준화활동에서 멀리 떨어지고 민간기구쪽이 표준화에 관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결과로 힘이 행정으로부터 비행정(非行政), 즉 민간에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의 규칙과 일의 순서를 정해나 가는데 있어서도 반영해 나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ITU는 현재 아직도 압도적으로 정부 관계가 많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정부 간의 기구이지만 정부기관 이외의 조직이 실제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또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참여도가 증가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과거에는 사람도 필요하면 파견해 주고 작업도 맡길 수 있고 자금도 내주고 그러나 어디까지나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행정측이다 하는 사고방식은 더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대신 이것을 통합하는 방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부간 조직인 ITU가 정부기관 이외의 민간의 조직과 어떻게 조화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의사결정에 어떻게 참가토록 할 것인가가 과제입니다. 또한 어디서 개발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민간의 소리를 구하게 되는데 이것에 관해서는 어드바이저리 그룹(Advisory Group : 자문단)이라는 것을 이미 앞서 말씀드린 세계의 섹터에 각각 설치토록 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표준화에 관한 것을 Telecommunications Standardization Advisory Group (TSAG)이라고 호칭합니다.

이 그룹에서는 정부기관과 민간기관이 한 자리에 모여 행정측이 특히 권리를 많이 갖

는 것이 아닌 동등한 입장에서 의논하고 표준화계획과 표준화절차에 대해서 의논하게 되는 것입니다.

표준화에 있어서는 이 그룹과 민간조직으로부터의 협력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들 관계자들이 제안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역시 그들이 실제로 관여하는 상황이 필요합니다. 정부쪽 표준화기관의 의견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상으로 민간기관이 표준화계획과 절차에 대한 의사결정에 발언권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TSAG에서는 정부기관과 민간기관이 권한을 공유하게 되지만 규약상에서는 행정 이 여전히 ITU의 지배자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민간기관에도 적극적으로 표준화과정의 실무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에 참가토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Advisory Group임으로 정부의 의견을 번복할 수는 없고 어디까지나 자문을 하는 입장입니다. 자문(Advise)임으로 무시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첫 걸음으로서 이후 ITU가 개방될 것이라 생각하고 싶습니다.

적어도 표준화에 관해서는 단기간내에 이 비정부계의 조직들이 거의 대부분의 작업을 실시하고 또한 의사결정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하게 된다는 것이 진일보하는 것이라 여겨 집니다.

TSAG에는 정부계와 민간계 기관의 대표자와 SG의 의장도 참가하고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합의제의 의사결정을 해 나가는 Group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하면 비정부계의 조직의 영향력이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표준화에 관한 법률상의 권한도 서서히 변화해 갈 것입니다.

이것은 무선통신 규제의 문제와는 별개의 독특한 것입니다. 또한 이는 정부의 문제이며 이후도 정부의 관할인 것입니다. 예컨대 주파수의 할당과 관리는 세계 어느 곳에서나 정부의 문제이지 민간부문은 아닙니다. 따라

서 무선통신 분야에서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장래에 있어서도 행정이 전권을 장악하게 되며 민간에게 이양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 결 론

지금까지 범세계적 전기통신의 표준화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술이 진보하고 또한 S/W도 변화하고 자유화에 따른 환경도 변화하고 있으며, 새로운 기회가 창출되고 새로운 리스크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ITU로서도 기업으로서도 또한 정부나 Network 운용자로서도 이제는 30년 앞의 일을 계획할 수 없으며 현재는 단기적인 계획만을 하고 있고 5,6년 앞의 일도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ITU와 그 가맹조직들도 똑같은 상황이며 이 점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예전과 같은 방식, 세상이 조용하던 시대 기술혁신이 그리 빠르지 않았던 시대와는 방법이 같을 수 없습니다. 범세계적인 표준화는 지금껏 성공적이었고 이 범세계적 표준화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아주 다른 방법으로 진행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기술이 변하고 환경이 변해 나가는 한 우리는 이에 적응해 나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즉, 표준화의 방법론을 개선해 나가야 하며 88년에 한 것 93년에 할 것. 이들은 진화의 절목(節目)이지 끝이 아닌 것입니다. 기술이 전진하는 한 환경이 변화하는 한 여러분의 조직은 이에 나날이 적응해 나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새로운 상황, 새로운 조건에 맞춰 나가지 않으면 안되며 이는 ITU도 CCITT도 같은 것입니다.

이런 교훈들을 착실히 가슴에 새겨둔다면 표준화 분야에 있어서 범세계적인 표준화의 성공은 확실히 약속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